

# “매너리즘 털어내고 제2 전성기 확신한다”

11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기성용이 22일 오전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년만에 K리그 돌아온 FC서울 기성용의 포부

FC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11년 만에 국내 프로축구 K리그로 돌아온 기성용(31)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기성용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K리그에 다시 서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드디어 오게 돼 행복하다”면서 “팬들에게 좋은 축구, 만족하실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초 K리그 복귀설이 제기됐으나 '친정팀' 서울과의 협상 난항과 갈등 속에 불발됐던 기성용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를 거쳐 어렵게 21일 서울 입단을 확정지었다.

2월 스페인으로 떠나며 구단에 불만을 토로하고 향후 K리그 복귀를 다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던 그는 이날 입단식과 기자회견에선 그런 일들을 털어낸 모습이었다.

“여러모로 과정 등에서 아쉬운 게 있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기성용은 “겨울엔 구단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의견 차이가 컸다”면서 “다들 아실 테니 그때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스페인에서 가

## 팬들의 기대·비판 있는 K리그가 동기부여 몸 상태 100% 아니지만 8월엔 뛸 수 있을 것

죽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고, 떠난 뒤에도 K리그 복귀에 대한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2차 협상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게 됐다”며 마음을 돌린 계기를 전했다.

40분가량의 입단 기자회견 동안 그는 ‘동기부여’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 유니폼을 입고 유럽에 진출한 뒤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으나 “지난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선수로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졌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기부여에 대해 고민

한 것 중 하나가 K리그였다. 팬들이 매주 저에게 큰 기대를 하고, 미치지 못하면 비판도 받지 않겠다”라며 “K리그에서 큰 동기부여를 갖고 하면 ‘제2의 전성기’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이 이번 시즌 갖은 악재 속에 K리그 1 하위권으로 처진 터라 그의 합류가 주는 기대감은 더욱 크다.

기성용은 “서울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실력과 의지가 있다.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리그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뉴캐슬이나 최근 거처 온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경기에 자주 뛰지 못했고, 발목 부상도 겪었던 터라 당장 그가 국내 그라운드에서 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3년 반의 장기 계약을 맺고 돌아온 만큼 기성용도 지속해서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서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는 “지난 1년은 축구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었다.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저를 돌아보는 충전의 시간이 됐다”며 “부상은 심하지 않고, 지금은 밖에 나가서 뛰고 있다. 100%가 아니라도 8월에는 경기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몸 상태가 온전히 돌아왔을 때는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전국춘계여자역도 광주시청 안시성 3관왕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용상 154kg ‘주니어 新’

안시성(광주시청·사진)이 제31회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 3관왕에 올랐다.

안시성은 22일 충남 서천 군민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 일반부(대학 포함) 경기에서 인상 90kg, 용상 107kg, 합계 197kg을 들었다.

안시성과 경합했던 김지영(공주시청), 유민아(하이트 진로)는 인상, 용상, 합계에서 2.3위를 차지했다.

‘포스트 장미란’을 꿈꾸는 여자 역도 기대주 박혜정(17·안산공고)은 고교 입학 후 처음 치른 대회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다.

박혜정은 21일 여자 고등부 최종량급(87kg 이상) 경기에서 인상 113kg, 용상 154kg, 합계 267kg을 들었다.

두 명만 출전한 경기에서 박혜정은 여유 있게 우승했다.

기록도 작성했다. 박혜정은 한국 주니어 여자 최종량급 용상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국제역도연맹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은 한국기준기록표를 만들었고, 한국 주니어 여자 최종량급 용상 기록을 153kg으로 정했다.

이날 전까지 여자 주니어역도 선수 중 용상 153kg 이상을 든 선수는 없었다.

그러나 박혜정은 용상 3차 시기에서 154kg을 들어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선미(20·강원도청)가 보유한 여자 주니어 인상(127kg)과 합계(280kg) 기록은 넘어서지 못했지만, 박혜정의 성장 속도는 무척 빠르다.

박혜정은 중학교 시절 인상 111kg, 용상 150kg, 합계 259kg을 들었다.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합계 기준 기록이 8kg이나 늘었다.

박혜정의 꿈은 더 크다. 그는 지난해 말 “2020년 목표를 인상 120kg, 용상 160kg, 합계 280kg으로 정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박혜정은 점점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rfoot@연합뉴스

## 女축구 LA신생팀 투자자 면면 화려하네

### ‘테니스 여제’ 세리나·배우 포트먼 등 대거 참여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신생팀이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와 배우 나탈리 포트먼을 비롯한 체육-예술계 여성 스타들의 투자를 대거 끌어모아 주목받고 있다.

NWSL은 22일(한국시간) 2022시즌 리그 참가를 목표로 로스앤젤레스에 연고를 두는 신생팀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직 구단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 구단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엔젤시티’로 불린다.

엔젤시티가 창단하면 NWSL의 11번째 구단이 될 전망이다.

현재 NWSL에는 9개 구단이 소속돼있으며, 2021년 캔터키주 루이빌을 연고로 하는 10번째 구단이 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 내 여자축구 인기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팀 수를 늘려온 NWSL이 드디어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신생팀을 창단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투자자들의 면면을 보면 엔젤시티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세리나

포트먼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평소 ‘양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윌리엄스가 남편이자 인터넷 서비스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언, 딸 올림피아와 함께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나탈리 포트먼, 에바 롱고리아, 제니퍼 가너, 제시카 채스테인 등 여성 스타 배우들이 엔젤시티 창단을 위해 투자금을 냈다.

엔젤시티 창단 컨소시엄의 줄리 어떤 회장은 “엔젤시티는 선수들과 팬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 브라질 ‘특급 유망주’ 에르난데스 영입 공격력 강화

전남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브라질 그레미우의 ‘특급 유망주’ 에르난데스(21·사진)를 영입했다.

183cm의 에르난데스는 양발용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유연함, 돌파력, 결정력이 좋다.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 볼 터치, 패싱력도 견제할 수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는 사카에누타에서 최고 기대주로 이름을 날린 선수다.

2019년 그레미우 유소년팀에 스카우트됐으며, 2020년 그레미우 1군 계약을

한 ‘특급 유망주’다.

에르난데스는 그레미우에서 브라질 1부인 세리에A 데뷔를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리그가 연기되자, 경기를 뛸 수 있는 K리그로 행선지를 돌렸다.

지난 6일 광양에 도착한 에르난데스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메디컬 테스트도 통과했다.

전남은 에르난데스로 측면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정료와 임차료의 부상 공백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에르난데스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K리그에서 뛸 수 있게 기회를 준 전남드래곤즈에 너무 감사하다. 전남드래곤즈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골 아니면 어시스트로 팀에 도움을 주겠다. 팀이 꼭 1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 하승운·황기욱·김주원 11R ‘베스트 11’에

전남드래곤즈의 하승운, 황기욱, 김주원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K리그2 11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전남의 2-0 승리를 이끈 하승운, 황기욱, 김주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하승운은 1-0으로 앞선 후반 37분 오



하승운

황기욱

김주원

른발로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썩기골을 넣었다. 전북현대와의 FA컵 16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골.

황기욱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수를 조율하면서 하승운과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원은 전남의 철벽수비를 이글며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김주원을 앞세운 전남은 올 시즌 11경기를 6실점으로 막으며 ‘잔물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K리그2 11라운드 MVP는 수원 FC의 마사에게 돌아갔다.

마사는 대전시지연과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블루 아워
3관	반도, 고 피쉬
4관	알라딘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알라딘, 블루 아워, 팬데믹
7관 씨네커틀	반도, 발할: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에베레스트, 슈퍼 레이스
8관 씨네커틀	#살아있다, 소리꾼,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V 동화음악회-책으로 풍을 읽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kwangju.co.kr**